

## 문화탐방

김희정<sup>1)</sup>의 한라산기(漢拏山記)<sup>2)</sup>

번역 : 제주동양문화연구소 연구원 백 규 상

아침에 산허리를 따라 동쪽으로 가서 오후에 이르니 비로소 왔던 때의 길을 만났는데 괴평촌의 목동이 말을 끌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고 새달이 희미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올랐던 곳을 돌아보니 마치 하늘 위에 있는 것 같았다

J E J U D E V E L O P M E N T F O R U M

나의 집은 한라산 아래 50리에 있지만 가까이에서 항상 문을 열고 이를 바라본다. 정상은 하늘에 꽃혀 있고 여러 봉우리는 벌려 서있는데, 아침에 햇살이 비쳐도 푸릇한 이내는 여전히 촉촉하고 저녁 석양으로 옮겨가면서 자줏빛 노을이 혹은 엉기기도 한다. 맑게 개인 낮에도 구름은 바람이 불어오는 팔방에서 나오고, 가을부터 쌓인 눈은 5월에 이르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숲이 한창일 때면 울창해지고 잎을 떨구면 우뚝 높아져서 깎아 세운 듯한 골짜기의 깊은 계곡과 낭떠러지의 가파른 절벽에 이르기까지 모두 또렷하게 가리킬 수 있으니 문득 ‘지계문으로 다가선 남산이 또렷해지네.’의 구절을, 지팡이를 짚고 나막신을 신어 오르는 수고로움 없이도 방안에 앉아 책상 위의 물건으로 움켜잡는다.

이런 까닭에 일찍이 육지를 유람하면서 호남에서는 월출산을 보았고, 충청도에서는 계룡산을 보았고, 서울에서는 남산과 삼각산을 보았으며, 또 영남에서는 지리산을 보았으면서도 지금까지도 아직 한라산을 모르지 못했다. 그렇

지만 육지사람 중에 한라산에 대해 묻는 자가 있으면, 둘러대는 말로, “바닥에 서린 둘레는 몇 백 리(里)나 되고, 정상까지는 몇 천 장(丈)이 되고, 백록담은 몇 리나 되고, 괴이하게 생긴 바위는 몇 천 개(頭)나 된다.”고 대답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실로 부끄러워하였다.

지난 을해년(고종 12:1875) 봄에, 면암(勉菴;최익현)선생이 귀양이 풀려 돌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갑자기 산에 오르게 되었는데 일이 있어 따르지 못했다. 이때부터 오르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게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다.

을해(을미년:1895) 여름 스스로 생각하기를, ‘병이 몸에서 떠나지 않고, 늙지도 않았는데 쇠약해지고, 마음속에 먹은 뜻도 점점 나태해지고, 다리의 힘은 점점 없어지니 지금을 버리고 유람하지 않는다면 절름발이와 앓은뱅이가 텅 빈 방을 지키는 꼴이 될까 두렵다.’ 하고는, 드디어 실행하기로 결심하고 이기용(李基瑢)<sup>3)</sup>, 김희선(金熙璿)<sup>4)</sup>, 김진호(金振鎬)와 그의 아들 시우(時宇)<sup>5)</sup>와 서로 약속했다.

기용은 그 아들이 만류하여 그만두었고, 희선은 타고 갈 말을 잃어버려 그만두어 단옷날 아침 마지막이 다만 진호 부자와 함께 말을 타고 나갔다. 집이 이 항면(恒勉)이 따라가길 원하여 허락했고 하인 둘이 또한 따랐다. 같이 길을 떠나는 일행에게 돌아보며, “네 사람이 가려고 했지만 이미 두 사람을 잃었다. 산에 오르는 어려움이 진실로 이와 같구나.” 하였다. 중간에 구름이 사방에서 몰려들고 음산한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저물기 전에 비가 올 것 같았지만 헛되이 돌아가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 1) 김희정(金義正(鼎)) : 1844(헌종 10년)~1916. 자는 우경(佑卿), 호는 해은(海隱) 또는 포규(蒲葵)이다. 조천읍 조천리 출신으로 평생 훈학에 종사하여 많은 제자를 길렀다. 당시 도학(道學)으로는 소백(小柏) 안달삼(安達三), 시학(詩學)으로는 해은(海隱)을 남주 제일인자로 손꼽았다. 1890년(고종 27) 석실서원(石室書院: 橘林書院) 건립을 발의하고 오현단을 쌓았다.
- 2) 해은 김희정의 유고집 『해은선생문집(海隱先生文集)』(필사본)에 실려 있는 한라산 등산기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한라산 등산기는 광해군 때의 백호 임제(林梯;1549~1587)를 시작으로 1937년 이은상(1903~1983)에 이르기까지 모두 8편의 기행문이 전하지만 한라산 동쪽 즉, 현재의 산천단 코스에 해당하는 등산기는 해은의 등산기가 처음이다. 한라산의 옛 등산로를 추정케 하는 사료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해은이 한라산에 오른 시기는 1895년이다. 그의 나이 52세가 되던 봄날이었다.
- 3) 李基瑢 : 1840(헌종 6)~1899(광무 3). 조선조 고종 때의 선비. 서예가. 자는 도오(道吾), 호는 동곡(東谷), 본관은 경주이다. 굴당(橘堂) 이기온(李基璫)의 동생이다. 면암 최익현과의 교유로 유명해졌고 문연서당(文淵書堂)을 개설, 훈학에 열의를 바쳤다. 오현단에 세워진 ‘향현사유허비(鄉賢祠遺墟碑)’의 글씨는 이기용이 쓴 것이다. 김찬흠 편, 『濟州史人名事典』, 제주문화원, 2002, p.472 참조.
- 4) 金熙璿 : 1863(철종 14)~1898(광무 2). 조선조 고종 때의 선비. 자는 순형(舜衡), 호는 농은(農隱), 본관은 김해이다. 김희정의 문하생으로 한시를 잘 짓고 글씨도 잘 썼다. 방성철의 난 때 피살되었다. 김찬흠 편, 『濟州史人名事典』, 제주문화원, 2002, p.194 참조.
- 5) 金時宇 : 1875(고종 12)~1918. 한말의 한학자. 자는 강여(剛汝), 호는 만취(晩翠), 본관은 김해이다. 김희정의 문하생으로 박학능문(博學能文)하였다. 조천리 만세운동은 바로 김시우의 소상날에 이루어졌고, 김시우 타계 7년 후 그의 집터에 문하생들과 아들 김윤환(金允煥)이 주축이 되어 그를 기념하여 세운 금대(琴臺)가 남아있다. 김찬흠 편, 『20世紀濟州人名事典』, 제주문화원, 2000, p.144 참조.



〈사진1〉 조천리 포구에서 바라본 한라산과 오름군

15리를 가니 괴평촌(怪坪村)에 이르렀다. 비가 올 조짐은 조금 풀렸고 길을 안내해 줄 사냥꾼 몇을 약속대로 만났다. 이에 말을 버리고 지팡이를 짚고 남쪽으로 10여리를 가서 단애봉(丹崖峯; 절물오름)의 절물에 이르러 풀을 깔고 앉아 ‘대차룽’을 열어 점심을 먹고는 비로소 산길을 따라 가기 시작했다.

때는 가물어 이슬은 옷을 적시지 않았고 먼지가 발끝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향기로운 풀이 깔리고, 푸른 그늘이 드리운 숲에는 햇빛은 들지 않고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점점 깊이 들어가니 고요하여 사람의 흔적은 없고 다만 하얀 목련만이 그늘진 기슭에 간간히 비치고 먼 숲에서 때때로 뽀뽀리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혹은 지팡이를 짚고 서서, 혹은 돌을 끌고 앉아서 세상사 잡다한 근심을 풀어버리면서 길이 깊어지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

수십 리길을 계속해서 가면서 숲한 기암과 골짜기를 지나 저물녘에 산기슭에 이르러 도리석실(道理石室)에 들어가 불을 지펴 밥을 지었다. 잡은 꿩으로 제수(祭羞)를 삼고 물을 술로 삼아 창려(昌黎)가 형악(衡岳)을 지날 때 한 것처럼 마음속으로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빌고는 석실가에 마련한 한 자리에 돌아와 누워 선잠을 잤다.

아침에 일어나 살펴보니, 별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구름은 모두 걷히어 맑은 기운이 이미 숲 사이에 드리웠다. 기쁨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여 아침밥을 재촉하고 행장을 꾸리니 해는 이미 높이 떠올라 있었다.

아득히 정상을 향해 계속 앞으로 나아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방을 둘러보니 길은 없고 구상나무숲이 어지러운 돌들 사이로 두루 가득했다. 쌓인 눈에 눌러서 가지마다 잎들마다 구부러져 거꾸로 늘어져 아래로 드리웠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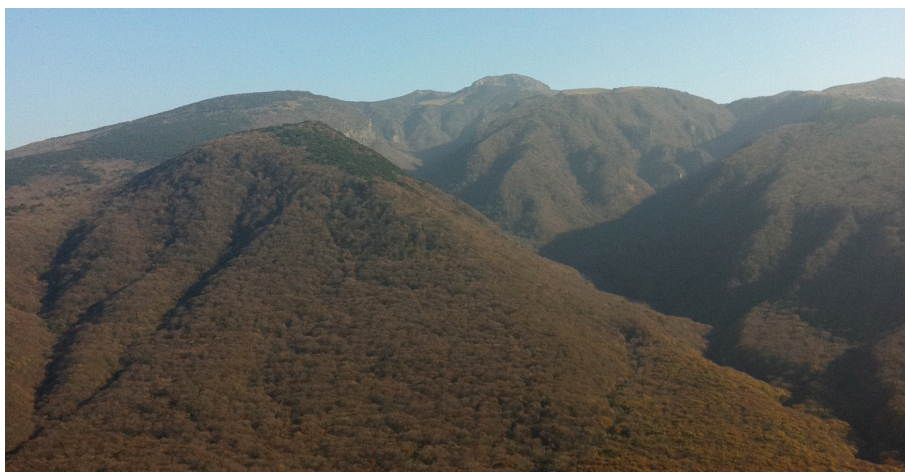
결국 머리를 숙여 꾸부정히 엎드린 자세로 나아갔는데 혹은 가지를 잡아당기며, 혹은 가지를 밟으며, 심지어는 무릎으로 기어가기도 하니 머리와 얼굴이 치이고 옷과 관이 찢어졌다. 그 일곱 번 넘어지고 여덟 번 거꾸러지는 천신만고(千辛萬苦)의 상황을 말로는 할 수가 없었다. 이에 길을 안내하는 자를 꾸짖으며, “촉도(蜀道)가 비록 험난하다고 해도 일찍이 갈고리가 달린 사다리(鉤梯)가 있었고, 태행(太行)이 비록 험난하다 하지만 오히려 수레를 타고 갈 수 있었으니 천하에 본래 길이 없는 곳으로 산을 오르는 자는 있지 않았다. 듣건대, 산 서쪽에 한 줄기 좁은 길이 있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저쪽을 버리고 위태로운 곳으로 사람을 빠뜨리느냐?” 하니, 길을 안내하는 자가 동쪽이 가깝고 서쪽은 멀다고 말하므로, “정상은 지금 얼마쯤 남았느냐?” 하고 물었다. 일어나 나무 없는 높은 곳을 가리키며, “정상은 저곳에 있는데 거리로 6~7리입니다.” 하였다.

비로소 구상나무숲 밖으로 나왔는데, 조릿대가 숲을 이루고 있었다. 길게 자란 것은 한 자(尺) 남짓이고 짧은 것은 몇 마디(村)인데 한 가지 빗갈로 평평하게 펼쳐져 있어 (그 위에) 앉을 수도, 밟고 지나갈 수도 있었다. 곧장 높은 곳에 이르렀는데 도중에 있는 오름으로 정상은 아니었다. 석실이 하나 있었는데 통괘(通怪)라고 하였다. 땅을 덮어 가린 활꼴모양에 10여 사람을 수용할 만 하였는데 단지 하나의 입구로 통하고 바깥에는 이끼가 끼지 않았고 안에는 고인 물이 있는데 물맛이 맑고 차가웠다. 한라산 중에 기이한 절경으로 하늘이 만든 도인(道人)의 거처로 머뭇거리면서 사방으로 바다를 둘러보았다.



〈사진2〉 한라산의 조릿대





〈사진3〉 어승생악에서 바라본 한라산

점점 높아질수록 못 산들이 모두 낮아지고, 시야가 툭 트여 이미 먼지세상 밖으로 나왔다. 백여 걸음을 옮기니 나무숲이 전과 같아졌는데, 힘은 거의 다 하여 한 단계가 한 단계보다 심하였다. 내가 이에 큰 소리로 앞으로 나아가며, “비록 이보다 백배로 험난하다 해도 어찌 중도에 그쳐서 삼태기 하나의 흙이 모자라 공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과 같이 하겠는가?” 하고는 길을 안내하는 자에게 정상이 지금 남은 거리가 얼마인지를 물으니, 일어나 나무가 없는 높은 곳을 가리키며, “정상은 저곳에 있으니, 거리로 몇 리쯤 됩니다.” 하였다.

나무숲이 다한 곳에 또 조릿대가 숲을 이루고 있었다. 곧장 높은 곳에 도착하니 도중에 있는 오름의 꼭대기로 정상은 아니었다. 잠시 쉬었다가 나아가다 또 나무숲 속으로 들어가 3~4리를 가서 길을 안내하는 자에게 정상이 남은 거리가 얼마쯤인지 물으니, 일어나 나무가 없는 높은 곳을 가리키며, “정상은 저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후에 진짜 정상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마음은 바빠지고 서둘러져 크게 힘을 내니 몸의 위태로움과 지세의 험난함을 알지 못했다. 나무숲이 다한 곳에 또 조릿대 숲인데 우러러 바라보니 정상은 하늘 위로 멀리 나타났다. 우뚝 솟아 그득하고, 둥긔하여 넉넉하니 하늘 남쪽의 원기(元氣)가 이곳에다가 다 부어진 듯하다. 동남쪽은 전부 돌로 된 골격이 드러났고, 서북쪽은 흙과 돌이 서로 섞여 있으면서 풀과 나무는 자라지 않는다. 오직 당귀와 만향(蔓香)만이 간혹 바위 사이에서 무성하고 진달래와 작약이 숲 아래에서 피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리를 믿고 오르니 형세가 비록 험준하였지만 나무숲에 비교하면 쉽기가 평지와 같았다. 정상에 이르니 갑자기 가운데가 텅 비었는데 사면이 석벽으로

둘러싸였고 둘레가 1리쯤 되었다. 북쪽 가에 물이 있는데 곧 백록담으로 얼었던 눈이 비로소 녹기 시작하고 있었고, 머물던 안개가 모두 사라져 맑고 깨끗하기가 한 점 티끌도 없으니 정말로 별천지였다. 이에 마음은 황홀해지고 온몸의 털은 곤두서며 멍하니 스스로를 잊게 되니, 백록이 물을 마시다 홀연히 흠어지고 못 신선이 평상을 옮겨 잠깐 사이에 숨어버린 것 같았다.

일행이 모두 벼랑을 따라 내려가서는 줄줄이 백록담 변에 앉으니 저절로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을 알아 감히 떠들어대는 자가 없었다. 시험 삼아 한 바가지 물을 마셔보니 가슴이 상쾌해지고 세속의 때가 씻겨 지니 빙옥(氷玉)을 삼켜 넘기는 듯했다. 길을 안내해 준 자가 일어나, “저는 다른 사람을 안내하며 열번을 이곳에 왔었는데, 혹은 구름이 안개에 덮여서, 혹은 비바람에 막혀서 하늘과 땅이 열려 걷힌 것이 오늘과 같은 날이 있지 않았습시다.” 하며 축하해 주었다.

산의 가장 높은 곳은 서쪽 꼭대기인데 밥을 지어 요기를 하고 술을 조금 마시고 난 후 힘을 써 부여잡으며 올라 초연히 홀로 서니 넓고 너른 곳에 내 몸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 우러러 보면 만 리 은하수를 손 안으로 끌어당길 수 있고, 굽어보면 세 고을(三邑)의 마을들이 모두 자리 밑에 있으며, 멀리 바라보니 끝이 흰히 트여 하늘빛과 물빛이 위아래가 하나로 푸르렀다. 끝없이 너른 가운데 우도 범섬 지귀도 마라도 가파도 비양도 화탈도 사서도 추라도 청산도 여서도 같은 크고 작은 섬들이 혹은 구름조각처럼, 혹은 주먹만한 작은 돌맹이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고 물에 떴다 가라앉으며 드러나지 않은 게 없었다. 만약에 대성인(大聖人)의, 연마(練馬)를 분별하는 안력(眼力)으로 이를 보았다면 동양과 서양, 남쪽의 중국과 북쪽의 내륙에까지 모두가 흰히 가리키기를 우리들이 크고 작은 못 섬들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할 것이다.

잠시 마음 놓고 이리저리 거닐다가 바로 내려와 백록담 북쪽 조금 낮은 곳을 따라 나와서는 한 가닥 길을 찾아서 돌아가려 하는데 근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더듬어 생각하니 흥은 다하고 서글픔이 찾아왔다. 가슴을 어루만지며 길게 탄식함은 길이 험한 데에 있지 않았기에 산신령에게 마음속으로, ‘불행하게도 멀리 궁벽하고 누추한 지방에 있어 현인과 군자의 유람이 없었지만, 또한 다행하게도 변화한 곳에 있지 않아서 세상 사람이나 풍류를 모르는 속객의 왕래를 면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다행과 불행이 산의 빼어난 경치를 덜거나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찍이 나이든 어르신에게 들으니 한번은 이양선(異樣船)이 바다를 지나가니 산에서 바람에 크게 일어 파도가 크게 솟구쳐 감히 해변에 이르지 않게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어찌 신령님의 영험이 예와 오늘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운수에 구애 받는 것입

니까? 이를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바위 사이에 머물고 싶지만 화전(火田)이 척박하여 어버이를 섬길 방법이 없고, 돌아가고 싶지만 비릿한 먼지가 덮고 가리어 멍에를 풀어 쉴 곳이 없으니 한 걸음을 띄고는 머뭇거리고 세 걸음을 띄고는 배회하며 차마 떠날 수가 없을 뿐입니다.’ 고 고하였다.

석양이 서쪽으로 지기 시작하니 울던 사슴은 흩어지고 들판의 꿩은 숲으로 들어가는데 행보가 개미목 동쪽에 이르렀다. 지형이 조금 널찍하고 평평하며 조릿대가 앞에 깔렸던 것보다 더욱 많아서 자리를 깔고 노숙하였는데, 밤이 되니 정신은 맑아지고 뼈 속까지 시려와 양가죽이 오히려 얇게 느껴졌다.

아침에 산허리를 따라 동쪽으로 가서 오후에 이르니 비로소 왔던 때의 길을 만났는데 괴평촌의 목동이 말을 끌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고 새달이 희미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올랐던 곳을 돌아보니 마치 하늘 위에 있는 것 같았다. 다음날 김희선이 와서 산을 유람한 즐거움을 묻고 또한 기문을 짓기를 권하니 이를 글로 써서 보인다.

## 漢拏山記

余家在漢拏山下五十里,而近常開門見之.絕頂插天,諸峯羅立,朝陽照而翠嵐猶滴,夕暉移而紫烟或凝.晴晝出雲占八風之所,自素秋積雪至五月而不消,林茂而蔚蒼,葉脫而崢嶸,以至絕壑深谷懸崖峭壁,皆歷歷可指,輒吟南山當戶轉分明之句,不勞筇屐之攀,而把作几案之物.是以嘗北遊於湖南見月出,於湖北見鷄龍,於上都見終南·三角,又於嶺南見智異,而尚未登漢拏.然北人有問之者,則權辭以答曰,“盤根爲幾百里,絕頂爲幾千丈,鹿潭爲幾許里,怪石爲幾千頭”云,而心實愧耻矣.粵在乙亥春,勉菴先生蒙 宥而返,不時登臨,有事未從,自是以來,欲往而未能不止一再.是年夏,自念病不離身,未老先衰,志氣漸愒,脚力漸疲,捨今不遊,恐爲蹙蹙者之守空堂,遂決意行之,與李友基·金友熙·金友振·其胤時宇相約.基爲其子弟挽留而止,熙失騎馬而止,端午日日晚,只與振鎬父子,並馬而出.家兒恒勉願從許之,下隸二人亦從焉.顧謂同行曰,“四人將行,已損二人.登山之難,固如是.”夫

中路密雲四合，陰風忽起，若未暮其雨，而誓不空返。行十五里，到怪坪村，雨意稍解，指路獵夫數人，依約而會。乃捨馬扶杖，南行十餘里，到丹崖峯寺澗，班荆而坐，開簞而點心。始從山路而行，時適天旱，露不沾衣，塵欲生襪，芳草織茵，綠陰傾蓋，赤日不照，涼風拂面。漸入深處，寂無人行，但見，辛夷間映於陰崖，又聞，布穀時鳴於遠樹。或依杖而立，或掃石而坐，消遣世慮，不覺路遠。行行數十餘里，閱盡千岩萬壑，暮當山麓，投道理石室。吹爐炊<飯>，執雉爲羞，酌水爲酒，登高默禱如昌黎過衡岳時，歸枕石頭一場，假寐。曉起視之，星斗初落，雲靄都收，清明氣象已露於林木之間，喜不自勝，催飯束裝，日上三竿矣。遙向絕頂而行，行未幾四顧無路，鳩桑叢木，遍滿於亂石之間，爲積雪所壓，枝枝葉葉，屈曲倒垂。遂俛首俯伏而行，或攀條，或踏柯，甚至於膝行，打頭面而裂衣冠。其七顛八倒，千辛萬苦之狀，不可形言。乃責指路者曰，“蜀道雖難，尚有鉤梯，太行雖險，猶得行車，天下元無無路而登山者。聞，有一鳥道在於山西，如何捨彼，而陷人於危殆之地乎。”指路者，謝以東近西遠。因問，絕頂今餘幾許。起指無木而高處曰，“絕頂在彼，行六七里。”始出叢木之外，苦竹成林。長者尺餘，短者數寸，一色平鋪，可坐可行。直到高處，乃中峰，非絕頂。有一石室，名通怪。壓地穹窿，可容十餘人，而只通一門，外無苔蘚，內有止水。水味清冷，箇中奇絕，堪作道人之居，盤桓四望大海。漸高衆山盡低，眼界洞然已出塵世之外，轉過百餘步，叢木如前一般，人力殆盡，一節甚於一節。余乃大言而前曰，“雖百倍此險，豈可止中道而虧一簣之功乎”。因問指路者絕頂今餘幾許，起指無木而高處曰，“絕頂在彼，行數里許。”叢木盡處，又是竹林。直到高處，乃中峰之上，非絕頂。少憩而進，又入叢木之中，行三四里，因問指路者絕頂今餘幾許，起指無木而高處曰，“絕頂在彼，今而後始知爲眞絕頂”。心忙意促，大段着力，不知，身之危，地之險。叢木盡處，又是竹林，仰見絕頂迥出半空，高而磅礴，圓而豐厚，天南元氣盡注於此。東南全是石骨，西北土石相雜，草木不生，惟當歸蔓香，或被於岩間，杜鵑芍藥始開於林下。信脚而登，勢雖峻絕，比諸叢木，易如平地。及到絕



頂,忽然中空四面石壁,周遭一里許.北邊有水卽白鹿潭,凍雪始消,宿烟盡空,溶溶淡淡,無一點塵埃,眞別天地也.於是心神恍惚,毛髮竦立,眊然自喪,若白鹿飲流而忽散,羣仙移榻而乍隱.一行皆緣崖而下,列坐潭邊,自知敬畏,無敢喧嘩者.試飲一瓢,胸次爽豁,轉覺滌塵垢,而吞冰玉.指路者起賀曰,“吾爲人前導十到此處,或爲雲霧所蔽,或爲風雨所窘,天地開除未有如今日者矣.”山之最高處曰西絕頂,炊飯療飢酌酒小飲,而後努力攀躋,超然獨立,飄飄浩浩,不知身在何處.仰而觀之,萬里星河,可攀手中,俯而視之,三邑村落,盡在座下,及其遠望,則端倪軒豁,天光海色,上下一碧.浩無涯涘大小諸島如牛虎兩島名知歸摩羅加波飛揚化脫斜鼠楸子青山餘鼠或如雲片或如拳石出沒浮沈無不呈露若使大聖人辨練馬之眼力當之東洋西洋南中州北內陸皆瞭然指點必如我輩之見大小諸島矣放懷逍遙移時乃下從潭北稍低處而出尋一條路而將歸撫念時事興盡悲來拊膺長嘆不在路險因心告于山靈曰不幸而遠在於僻陋之鄉未有賢人君子之遊覽亦幸而不在於繁華之場得免塵人俗客之往來其幸不幸無足損益於山之形勝也嘗聞故老之言一有異樣船過於海上則山風大作波濤洶湧不敢近邊今也則不然豈仙靈有古今之異歟抑爲氣數所拘歟是未可知也欲栖岩而火田瘠薄無養親之道欲復路而腥塵蔽塞無稅駕之地一步躑躅三步徘徊忍而不能去而已夕陽西下呦鹿散原雉雉投林行至蟻項之東地稍寬平苦竹尤多於前藉而爲茵露宿達夜神清骨冷羊裘猶薄朝從山腰而東行至午後始得來時之路而怪坪牧童牽馬來待遂騎還家時已黃昏新月微明回看登臨處如在天上翌日金友熙璿來問遊山之樂且勸爲之記因書此而示之 **JDI**